



#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 세계 20년간 세계 양돈산업 2배로 성장

1997년도 세계의 양돈산업 역사는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그것은 바로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8천8백만톤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연간 생산량으로는 최고치이며, 세계 양돈산업이 과거 20년 동안에 두배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977년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42.9백만톤이었으며, 1987년은 63.5백만톤, 1996년은 83백만톤에 이르렀다. 지난해 생산된 돼지고기량은 대략 11억5천만두의 돼지를 도살한 것이다.

FAO기록에 의하면 1977년은 642.4백만두를 도축했으며 1987년에는 853.1백만두로 증가했다. 도축두수의 증가분보다 더 많은 고기량이 생산된 것은, 도축두수의 증가는 물론 도축체중의 증가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7년에는 평균 도체중이 67kg이었으며 1987년에는 74kg, 1997년에는 77kg 수준까지 증가했다.

## 미국 일본에서 돼지고기 소비 캠페인 전개

“미국산 돼지고기 좀 사주세요” 미국식육수출연합회가 일본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대만

의 대일수출이 구제역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미국산의 수출증가를 기대했으나 한국, 캐나다산의 수출공세에 밀림에 따라 미국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US일품포크’를 테마로 신문, 잡지광고를 비롯 지하철광고 등에 나선다. 또한 식육업체, 양관점에 미리 광고를 내는 날짜를 연락하고 소매점에서 캠페인과 연계한 판촉활동을 전개한다.

이 연합회는 품질, 안전성, 가격등 여러측면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판매를 늘리기로 하였으며, 이같은 판촉활동 강화로 '98년엔 미국 돈육의 대일수출이 20% 정도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소비자 식육 안전성 중시, SPF육, 브랜드육 등 소비증가

일본의 소비자들은 식육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업체별로 보면 전문점에서의 판매량은 줄고, 슈퍼마켓에서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식육소비총합이 지난해 업체별 식육판매점의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업체별 전문점 268개소, 슈퍼마켓 2,644개소, 생협 486개

소, 농협 71개소, 기타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매장의 육류별 매출구성은 돼지고기 23.4%, 쇠고기 32.6%, 가공품 19.5%, 닭고기 14.9%, 부산물 2.1% 등으로 4대품목 매출이 전체의 9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매출순위는 흑육돈, SPF육, 브랜드육, 국내산, 수입육 순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흑육돈은 86.0%가 1년전에 비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 소비부진에 엔화약세로 수출국가들 경쟁 치열

일본 돼지고기 시장을 놓고 주요 수출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최근의 엔화 약세현상으로 경쟁은 가열되고, 수출 채산성은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0엔까지 하락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수출국들은 대일 수출확대로 발생한 과잉생산 및 수출부진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엔화 약세에 따른 파장은 국내 양돈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근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패와 같은 셋트 수입이 어렵게 되어 콤비네이션(부위별) 수입에 주력하였었다. 그로인해 종래의 부위별 수입량의 균형이 깨지고 등심이나 안심이 필요이상 수입되고 국내 유통가격도 싸게 거래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이에 반해 전지, 후지 등의 저급부위나 어깨등심은 최근 품귀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97년의 식육가공용 후지 원료 수입부족이 3~4만톤, 전지도 3만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98년에 수입량 확보가 주목되고 있다.

## 수입식품 잔류물질 모니터링, 돼지질병 유입 방지 총력

일본 후생성은 지난 5월 14일 1998년도 수입식품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요령을 검역소에 시달했다. 모니터링 대상 식품은 식육제품 등 수입식품 전반에 걸쳐 총 36,905개로 하고, 채취된 검체마다 복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중 육가공품은 솔빈산, 이산화유황, 착색료, TBHQ 등이며 생식용 식육의 살모넬라속 균도 포함된다. 국가별 돼지고기 모니터링 검체수는 미국 200, 호주 10, 캐나다 50, 멕시코 20, 아일랜드 10, 대만 20, 덴마크 150, 한국 50, 프랑스 10, 영국 10, 네덜란드 20 등이다.

한편 일본은 최근 자국내 질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국내에 요구하는 위생조건으로는 구제역 등 국내에 없어야 할 질병과 수출검역개시전 12개월내 및 수출검역개시전 30일내 발생하지 않아야 할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 EU 돼지고기 수출보조금 부활

EU의 돈육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약 2년만에 돼지고기 지육 및 부분육(뼈 있는것)에 대한 수출보조금 교부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돈육가격 하락에 대한 가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써, 브뤼셀에서 열린 돼지고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출업자들은 지난달부터 돼지 삼겹살의 경우 1톤에 1백30에쿠(1ECU는 1,500원정도), 냉장육의 경우 1톤에 20에쿠씩 지원받게 되며 수출량과 목적지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값은 2~3주 전에 비해 13% 하락한 1톤에 1천2백50에쿠 수준

이며, 연초에는 1톤에 1천5백50에 쿠였으며 2년전에는 1톤에 2천에쿠 정도였다. 유럽연합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원인은 광우병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선호해 돼지고기값이 좋아진 것과 네덜란드에서 돼지고기 콜레라가 진정됨에 따라 네덜란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번 결정은 '96년 6월이래 약 2년만이며, 5월 14일부터 시행되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영국 등에서 매년 약 50만톤 정도의 돼지고기를 한국·일본·러시아·폴란드·헝가리·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 산지 생돈가격 최근 10년중 최저치

최근 1개월 호남, 호북, 강소, 사천, 하남 등 산지에서 생돈 판매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돈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데다가 옥수수 가격의 반등으로 돈육생산 원가상승으로,

농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4월중순 새끼 돼지, 생돈가격은 동기대비 18.6%와 18.8% 하락되었다. 특히 4월말에서 5월초까지의 가격은 매일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산지의 생돈가격은 최근 10년의 최저치에 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옥수수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4월 중순 옥수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인상되었다. 생돈생산의 원가 상승에 비해 생돈생산에 따른 이익은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호남성 생돈 수매가격은 최근 15일 50% 인하되어 한 마리 우랑종 돼지를 생산하는데 200~300위안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사천성에서는 한 마리 육돈을 생산하는데 작년에는 100~150위안의 이익을 얻었지만 현재는 100~150위안의 손해를 보고 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생돈 생산량은

매년 평균 10% 정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95년의 돈육 판매난에 이어 올해도 양돈농가는 돈육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 물부족, 세계곡물공급 크게 위협

세계최대 인구국인 중국이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속한 물 부족사태로 농업부문이 타격을 받아 결국 전세계 곡물 공급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양쯔강과 황하강을 비롯해 5만km에 걸친 물줄기를 갖고 있으나 이중 80%가 수년에 걸쳐 마르거나 공장폐수로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국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금주에 개최되는 토지 및 물이용에 관한 국제워크숍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브라운 박사는 '만약 중국이 막대한 양의 곡물을 세계시장에 의존하게 될 경우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제3세계 도시들의 곡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쌀과 돼지고기 생산보다는 물을 보다 절약할 수 있는 가금류, 물고기, 소맥 등의 생산에 몰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돼지구제역 재발

대만에서 지난해에 이어 돼지 구제역이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생시점이 중국과 북한의 구제역 발생설이 유보되기 시작한 지난 5월 초순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식육속보'는 지난 5월 9일 대만 고웅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5두의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월 5일 보도했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3월 구제역이 처

음 발생한 이후 12월에도 발생, 14개 농장 750두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네덜란드 돈콜레라 박멸, 남부지역 수출금지 해제

네덜란드 농업자연관리수산성은 최근 지난해 2월 발생한 돈콜레라가 완전 박멸됐음을 확인했다고 네덜란드 식육공사가 지난 5월 15일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돈콜레라 이동을 막기 위해 봉쇄해온 남동부 벤호르스트 지방의 돈콜레라가 완전 박멸됨으로써 지난해 2월 자국에서 발생한 돈콜레라 파동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브뤼셀의 The Permanent Veterinary Committee가 제안한 화란 남부지역 수출금지 해제안을 통과시켜, 네덜란드 남부지역 돈육사육업체의 돈육수출을 허가하였다.

이로인해 남동부지역의 북쪽도시 Venhorst를 중심으로 한 400㎡를 제외한 모든 화란지역의 돈육수출이 허가되었으며, 육류생산부에 의하면 조만간 위 지역의 돈육수출금지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4일 이후 중단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 브라질 육종분야에 대규모 투자

브라질 양돈협회의 관계자들은 최근 브라질에 지난 7년동안 20%이상 모돈이 증가했으며, 이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사울 파울로에서 개최되는 제5회

중남미 축산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은, 육종학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돼지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중 한 프로젝트는 Parana남부 브라질에서 통합생산처리를 위해 1만두의 모돈에 대해 5백2천만불 상당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 프로젝트는 브라질은 물론 미국 협동 투자자들이 Matto Grosso의 북부지역에서 4만두의 모돈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질의 양돈전문가 위원회는 모돈 1두당 26~30두의 돼지를 생산해 내는 것이 ‘다음 세기의 시작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 덴마크 돼지고기에 대한 품질보증 상표 개발

덴마크는 돼지고기에 대한 품질보증 상표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품질보증 상표는 예전의 품질보증을 대폭 변경 추가한 것으로써 가장 큰 차이점은 가축 복지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 이 품질보증의 적용여부는 업체마다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Kwalitet med omtanke’ 라는 문구가 포장에 표시되는 이 품질보증 상품은 아직은 널리 분포되지 않은 단계로 현재 덴마크내 2개 슈퍼마켓 체인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품질보증상표는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품질보증 상표는 덴마크 농수산부가 주도하여 소비자보호협회, 동물보호협회, 소매업체, 도축·생산업체등이 함께 합의 결정한 것으로써, ‘농가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며 특히 강조된 사항은 동물의 후생복지 시설로서 가축의 위생, 건강, 안전, 운송방법 및 고기맛 등을 관리한다. **養豚**

